



수신	각 언론사 과학, 노동, 사회부 담당 기자 등
발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락처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4년 11월 19일 13시
제목	충북TP 오원근 원장 무책임한 행태 규탄! 중식집회 개최!

충북TP 오원근 원장 무책임한 행태 규탄! 중식 집회 개최!

- 조합원 100여 명, 오원근 원장 직접 나서 임금협약 체결 촉구-

충북테크노파크지부를 비롯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11월 19일 12시부터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미래정원에서 중식 집회를 열고, 오원근 원장의 임금협약 미체결 등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충북테크노파크 오원근 원장 규탄 집회에 참석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

과기연구노조는 앞서 11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충청북도가 충북테크노파크 노사 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노사 간 자율 교섭의 원칙을 무시한 충북도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충북도의 임금 협약 체결을 지연시키는 태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노조의 ‘임금협약 즉각 체결과 이행’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지난 11월 13일 충북도 과학인재국장, 과학기술정책과장 등 직접 면담을 진행해 충북도에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 했으며, 충북도는 기관 창립 후 20년 동안 충청북도의 발전에 충북테크노파크가 많은 부분을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기존 총인건비 3.9% 인상 고수 입장에서 벗어나 변화를 시사했다.

이번 중식 집회는 이러한 입장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오원근 원장에게 전달하고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조합원들은 “충북도의 개입으로 인한 임금 협약 중단은 산하기관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원근 원장은 충북TP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호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충북도와의 면담으로 변화를 이끌어 낸 만큼 앞으로 오원근 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갖고서, 충북도와 원만히 마무리를 통해”를 임금협약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원근 원장이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오원근 원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된 행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2024년 11월 19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